

# 家庭管理學科 教育현황과 特性化 과제

劉 永 珠  
(慶熙大 家庭管理學科)

## 1. 序 言

家庭管理學은 家族을 중심으로 근접 환경과의 상호작용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함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이 속하고 있는 가정의 발전은 물론,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동시에 내포한다.

개인의 건전한 성장·발달은 물론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관리학은 그 역사가 길지 못하여 아직도 학문적 正體性 확립이나 사회적 기여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정교육과 혹은 가정학파가 가정대학으로 확대 승격되면서 가정학의 내용을 가정학 원론적 차원에서 分科하지 못하고 의생활·식생활(의류직물학과·식품영양학과)만을 대상으로 분과시키고, 주생활·인간(아동, 노인 포함) 가족생활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시켜 家庭管理라는 매우 포괄적인 명칭으로 하나의 학과를 설립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가정관리학과는 2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아동학회, 가정관리학회와 더불어 최근에 주거학회, 소비자학회, 가족학연

구회 등이 발족되어 연구활동이 활발하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즉 가족문제, 소비자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사실상 가정관리학과에서 연구하는 주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당사자들이나 외부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편협되고 폐쇄적이어서, 도대체 가정관리학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간 가정관리학을 담당해 온 교수들의 책임임을 절감하면서, 금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학과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은 다른 학과의 문제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가정관리학과와 沿革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教育內容과 外國의 가정관리학의 특성을 검토한 후, 가정관리학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혀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沿革 및 教育課程

### 1) 沿革

모든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 가정관리학은 사

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반응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인 가족과 근접환경 자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당시 가정학은 농경사회에서 수행했던 가사작업과 가정관리 등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婦德을 중심으로 하는 家事教育이 중심이 되었다. 1950년 6·25사변, 1953년의 정부환도 등의 혼란기를 거쳐 1954년 가사를 「실업·가정」(남자: 실업, 여자: 가정)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가정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적극 추진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산업사회 체제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그 당시 가정학은 생활의 科學化를 추진하였고, 가정학계는 의·식·주·가정관리·육아·가족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원리적용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치중하였다. 1964년 연세대의 가정대학 설립을 선두로 하여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화여대, 서울대, 영남대가 각각 가정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를 갖춘 가정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세대 가정대학은 의·식·주·아동의 4개 학과로 출발하였고, 이화여대, 서울대, 영남대는 의·식·가정관리학과의 3개 학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학의 專門性을 새로이 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70년대의 가정학 방향”, ‘급변하는 사회와 가정’ 등의 주제로 새로이 도전하여 오는 사회에 임할 가정학 정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그간 자연과학적 측면에 치중하여 온 가정학 연구를 ‘인간발달과 인간관계’를 핵심으로 사회과학과의 連繫性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에는 ‘인간생태학과 가정학’이라는 주제로 현대 산업사회와 가정학과의 관계 및 연구내용의 정립을 기하였다. 가정대학 설립후 의·식생활에 관련된 학과는 어느 정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아동·가족관계·가정경제·가정관리가 모두 통합되어 있던 가정관리학과는 연세대와 숙명여대의 주생활학과, 아동학과 분

리신설 이외에는 모두 가정관리학과에 소속되어 있어 전문성 확립에 있어서의 발전이 지연된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 및 명칭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장명옥·유영주, 1980), 가정관리학과와 정제성 확립과 전문성 추구를 위하여 각 대학마다 대학의 실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서울대의 소비자 아동학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후 지방대학에서는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을 그대로 두고 전공분리를 하고 있는 대학(인제대, 울산대)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대학 명칭에 있어서는 연세대·성균관대가 생활과학대학으로, 건국대가 생활문화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가정관리학과와 변화를 위한 시도가자 변화 추구의 시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학과와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대학에는 한국교원대의 발족과 더불어 가정교육과가 축소 내지 폐쇄되면서 가정대학이 신설되고 다시 의·식·가정관리의 3학과 분리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충북대, 경북대, 전북대).

## 2) 教育課程

전국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영역별 실태와 선정 6개교의 각 영역별 교과과정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 3. 外國 家庭管理學 教育의 特性

### 1) 美 國

미국의 가정관리학과 및 관련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를 살펴본 결과, 가정관리학 분야는 대체로 가게 및 소비자, 가정관리,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학과와 아동, 가족 분야를 포함하는 2개 학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 따라 각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분야는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에게 비하여 전공분야가 매우 세분화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공은 선택분야로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전공 영역별 교과목 수

과목 수(%)

대 학 명	아 동 학	주 거 학	가 정관리학	소비자학 (가정경제)	가족학	합 계	비 고
건국대	5(23)	6(27)	3(14)	5(23)	3(14)	22(100)	
경희대	9(27)	10(30)	5(15)	2(6)	7(21)	33(100)	
계명대	7(21)	4(12)	6(18)	7(21)	10(29)	34(100)	
대구대	7(22)	2(6)	7(22)	8(25)	8(25)	32(100)	주거학과 독립
동아대	8(27)	6(20)	3(10)	4(13)	9(30)	30(100)	
동의대	9(32)	1(4)	6(21)	5(18)	7(25)	28(100)	
부산대	7(19)	16(43)	2(5)	5(14)	7(19)	37(100)	
부산여대	4(14)	7(25)	6(21)	3(11)	8(29)	28(100)	
서울대	7(23)	2(7)	5(17)	9(30)	7(23)	30(100)	→ 소비자·아동 ·가족학 아동학과 독립
성균관대	1(6)	1(6)	3(17)	5(28)	8(44)	18(100)	
성신여대	5(16)	5(16)	8(26)	4(13)	9(29)	31(100)	
성심여대	4(14)	9(31)	5(17)	4(14)	7(24)	29(100)	
수원대	9(30)	2(7)	8(27)	3(10)	8(27)	30(100)	
숙명여대	—	5(22)	5(22)	6(26)	7(30)	23(100)	아동복지학과 독립
안동대	6(23)	5(19)	3(12)	6(23)	6(23)	26(100)	
울산대	8(25)	16(50)	—	—	8(25)	32(100)	전공분리
원광대	2(10)	2(10)	6(29)	3(14)	8(38)	21(100)	
이화여대	9(43)	1(5)	4(19)	4(19)	3(14)	21(100)	
인제대	2(5)	20(50)	—	10(25)	8(20)	40(100)	전공분리
인천대	2(9)	4(17)	8(35)	4(17)	5(22)	23(100)	
인하대	8(22)	6(16)	8(22)	8(22)	7(19)	37(100)	
전남대	5(19)	6(22)	5(19)	5(19)	6(22)	27(100)	
제주대	6(21)	6(21)	6(21)	4(14)	7(24)	29(100)	
중앙대	6(26)	6(26)	2(9)	2(9)	7(30)	23(100)	
한양대	3(14)	5(24)	6(29)	4(19)	8(38)	21(100)	
호성여대	1(3)	9(29)	6(19)	6(19)	9(29)	31(100)	

〈표 2〉 가정관리학과 전공영역별 개설 현황

대 학	A	B	C	D	E	F
전공영역						
가 족 학	가족학 한국가족론 현대가족이론 노년학 가족관계 가족관계학연습	가족학 한국가정과전통 가족발달	가족발달론 한국가족론 한국가정생활사 가족사회학 노년기 발달 가족생활상담· 치료	가족학 가족관계학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노년학 가족과 법률 가족상담 가족학연습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학 노년학 가족상담 가족상담실습 가족관계학연습	가족사회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1,2 상담심리학 가족상담실습 노년심리
관 리 학	가정관리론 가사노동이론· 실습 가족자원관리론	가정경영원론 가정자원관리 가정관리행동 분석론	가정경영학 가정관리실습 자원관리	가정관리학 가정관리실습 가사노동론 생활기론	가정관리학 가정관리실습	가정관리이론 가정관리실습 가정관리연습

대 학	A	B	C	D	E	F
전공영역	관리학연습 관리문제론	가정노동론	가정기기이론· 실습 가정경영세미나	관리학연습 가정관리행동분 석론		가상노동이론· 실습 가족자원관리법
소 비 자 학	소비자교육론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연습 소비자행동론 가계경제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학연습 한국가계론	구매의사결정론 소비자와 경제 소비자와 시장 가정경제	가정경제학 구매론 소비자보호·교 육 소비자정책·주 택경제 소비생활연구	가정경제학 소비자교육론 구매론연습	가정경제학 소비자행동론 소비자정보처리 실습 소비자교육론	가정경제론 소비자교육 소비자행동 소비자보호 소비자경제학
아 동 학	인간발달 1, 2 청년발달 유아교육론 아동가족상담 부모교육론 유아언어발달 지도 유아사회성 발달지도	아동의 신체· 인지발달 유아학교 아동연구 아동관찰 영아기발달 특수아동 청년발달 아동문제·지도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분리)	인간발달 아동학 청년발달 특수아동지도 아동복지 유아교육론 아동놀이·실습 부모교육 아동학연습	영아유아발달 아동과 환경 아동발달 부모자녀관계 아동행동분석 실습 청년발달 아동행동지도	인간발달 아동발달 유아·아동연구 실습 아동복지론
주 거 학	주거와 환경 주거경제론	주택관리	주거학 주거환경조성론 실내장식이론· 실기 주택설비·시설 주택공간선계	주거학 주거와 환경	주거학 주택계획 주택문제연구 주택환경학 조경학 설계제도 기초디자인 주택설계 주택환경실습 색채학 주택구조·재료 주생활연구 실내디자인원론 주택의장학 실내디자인 1,2 주택사	주거학 실내디자인·실 습 디자인·색채 실습 주거사 주거환경론 주택설계·실습

각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상의 특징은 교과과정마다 특정 분야에 전문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아 및 아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은 디자이너로서, 가계재정 전공은 가계재정 상담자로서 취업하도록 준비시킨다. 인간발달·가족학 전공은 사회복지사 기관이나 청년단체에서, 가계 및 소비자경제학 전공은 정부와 기업의 소비자 관련 부처, 소비자 상품 마케팅, 각종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2) 獨逸

독일에서의 가정학은 가정관리학 전공, 영양학 전공, 영양경제 전공의 세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나뉘어 기초과정을 마친 후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과정은 일반적으로 4 학기가 끝난 후 Diplom-Vorprüfung(Diplom 전의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차 Diplom-Vorprüfung의 과목은 영양생리, 식량생산, 가정관리, 미생물 및 위생, 사회학이다. 기초과정에서는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목들을 총괄하여 93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Diplom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論述試驗에 합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Diplom 논문은 2 학기 내지 3 학기에 걸쳐서 작성된다. 8 학기가 지나면 Diplom 시험(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Diplom 시험과목은 가정관리 전공인 경우 가정관리원론, 기구관리 및 가사노동론, 소비이론, 주거생태학, 사회학, 상담 및 의사소통이론, 영양학 등의 필수과목과 사회 및 가족정책론, 식량생산경영론, 영양경제시장론, 식품학 중 1 과목을 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필수과목 중 가정관리원론은 개인 가정관리론과 공공 가정관리론 중 하나를 택한다.

Diplom-Vorprüfung 및 Diplom 시험은 모두 口頭試驗으로 구성된다. 시험을 위한 전공과정 이수학점은 72~82 학점이다. Diplom 시험을 치기 위한 전제조건은 Diplom 논문이 통과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6 개월간 현장실습을 했다는 증

명서가 필요하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된 기업, 상담실, 연구소, 국제기구, 신문방송매체 등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 3) 日本

우리나라의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에 해당되는 일본의 가정학부 가정경영학과와 교과과정을 비교적 가정학이 발달되어 있는 お茶の水女子大學, 奈良女子大學, 日本女子大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お茶の水女子大學의 경우, 가정학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동학과, 식물학과, 피복학과, 가정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가정관리학과에 해당하는 가정경영학과를 살펴보면, 우선 그 명칭부터가 다르고 교과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전공필수 과목 부문에는 가정학원론·가정경제학·가정경영학·가족사회학으로, 전공선택 과목 부문은 행동에 관련된 과목, 가족에 관련된 과목, 통계과목, 가정경제에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가정학부에 주거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관련 과목인 '주택설비 및 환경'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설강되어 있고, 주요 과목에 대한 연습이나 실습과목이 설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목당 학점배당이 2 학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현재의 가정학부가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1993년부터 학부명칭을 변경하고 학부내 학과 개조를 한다고 한다. 즉, 가정학부를 생활과학부로 개칭하고, 기존의 아동학과, 식물학과, 피복학과, 가정경영학과를 통합하여 생활환경학과, 인간생활과학과로 재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分科主義를 선호하는 우리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奈良女子大學의 가정학부는 식물학과, 피복학과, 주거학과, 생활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경영학과와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전공필수 과목 부문은 가정학원론, 가정경제학, 가정경영학, 가족관계학, 생활환경·복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전공필수 과목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고 외국어 강독과목에 16 학점, 졸업논문 8 학점이나 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환경·복지관련 과목이 이 부문에 설강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그리고 가정학부 내에 아동학과가 없지만 그것에 관련된 과목의 설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日本女子大學의 경우, 가정학부는 아동학과, 식물학과, 피복학과, 주거학과, 가정경제학과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가정관리학과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가정경제학과에서는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經濟’에 관련된 과목들만 설강되어 있다. 전체 설강과목의 수는 적지만, 대다수 과목의 학점이 4학점으로 배당되어 있다.

#### 4. 學科 運營의 問題點

가정관리학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본 학과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공분리문제, 취업문제, 학과명칭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專攻領域 문제

현재 전국의 가정관리학과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정관리학·소비자학·가족학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에 따라 아동학·주거학까지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영역은 개인의 개별 가정을 관리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 학과에서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영역에서 개론적인 수준까지만 배우고 졸업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직업분야에서 그 성격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가정관리학과 졸업 학생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 2) 就業 문제

가정관리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就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학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관리학과에서 취업과 관련된 과목의 補講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교사, 일반기업체,

연구원, 인테리어 디자이너, 속셈학원강사, 조리사 등으로, 이 중에서 전공을 살린 분야는 교사, 연구원, 회사원,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로 진출하고 있고, 그것도 전공을 살린 경우는 아주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할 때, 가정관리학과는 취업과 무관한 학과라고 할 수 있겠다. 혹자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학과 자체가 가지는 특성 외에 가정관리학과 학생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성이라는 사실과 사회구조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여 가정관리학과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학과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資格證을 취득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로비활동이 필요하다. 즉, 가정관리학과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회와의 연계를 갖지 못했다는 점과 아울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3) 學科名稱 문제

학과명칭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배운 것을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과명칭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어서 1980년 장명옥·유영주 교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0여 년 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학과의 현재 명칭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학과명칭에 대해서 대두된 의견 중에는 학과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어설피 바꾸는 것보다는 가정관리학과로 그대로 두고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구체적인 명칭으로 바꾼 경우를 제외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할 경우 가족환경학과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족생태학과·가족자원

관리학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가족환경 학과로 할 경우 ○○전공, ○○전공을 명시해 준다면 전공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정경영학과로 개칭하자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 5. 改善方案 및 結言

가정관리학과의 문제는 5개 전공영역 모두를 수용하려는 무리한 교과과정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전문인 양성에 부적절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요구되는 주거문제, 소비자문제, 자원관리문제, 아동문제, 가족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므로 학문 체계상 아동·가족 분야와 소비자·관리 분야로 분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分科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학교사정에 따라 學問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칭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분리 경향 추세에 있는 주거학·아동학을 제외하고 가정관리학과의 3분야(가족학·소비자학·가정관리학) 별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학에서는 첫째, 가족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역사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연구 방법론의 다양화와 창의적인 주제성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연구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학의 경우, 고등교육 차원에서 소비자학 연구와 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 학과 또는 단과대학에 프로그램을 위치시키고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學際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엽성이나 편협성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開放的인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학 연구를 촉진시키며 이론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가정관리학의 경우는 첫째, 한국 가족에 부합되는 자원관리 이론의 정립 및 이를 토대로 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관리 과정

의 기초적 요소인 가치, 의사결정, 의사소통에 관하여 측정방법, 영향요인,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관리의 산출요소인 생활만족도, 생활의 질 향상,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가정의 생산능력의 증진 등에 투입 및 관리과정의 요소나 사고과정이 어떻게 기여하며 이 산출요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자원에 관한 개념정의를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고 자원의 특성, 측정방법,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 자원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관한 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자원의 희소성에 적격한 오늘날에 있어서 자원사용 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의 특성에 따른 자원관리 모델의 적용 방법과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인 가족과 근접환경 자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가정관리학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되어야 한다.

이상의 3분야를 통합한 넓은 개념의 명칭을 모색하는 것은 어렵다. 개념상으로는 가족이 제일 넓은 개념이고 현대가족의 기능적 차원에서 자녀양육 기능, 부부 상호작용 기능, 소비 기능을 강조한다면 家族學科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학에서 가정관리학이 먼저 개설된 만큼 가정관리학이 가족의 하위개념으로 전환되기가 어렵고, 현대사회에서 소비 기능이 중요하므로 소비자문제를 可視化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따라서 私見을 제시한다면, 가족·소비자학과 또는 가족·가족자원관리학과 등이 매우 명백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족문제, 소비자문제, 가족자원관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이들 세 분야를 통합하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문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발전은 건전한 가정이 지력이 되며, 건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개개인이 이룩된다는 常識的인 現象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